

## 복식미를 보는 시(視)형식 개발

신 주 영\* · 김 민 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강사\*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The Development of Perspectives for Viewing the Aesthetics of Costume

Jooyung Shin\* · Min-Ja Kim\*\*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8. 4. 15, 심사(수정)일: 2008. 5. 9, 게재확정일: 2008. 7. 18)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cribe formative perspectives as a framework where the aesthetic taste and demands of a certain period are embodied and to develop new analytical tools to examine the beauty of dress in terms of form.

First, the theoretical tools selected for this study are Heinrich Wölfflin's formative perspective theory derived from art and Marilyn R. DeLong's framework for visual analysis of dress. Second, several issues that limited the development of a new framework for analyzing the form of dress were identified and addressed. Third, the selected aspects of dress form to be analyzed are specified. They are: silhouette, inner form, structure form, materials and patterns based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dress and space in order to develop new formative perspectives.

Based upon these theories a new framework for analyzing dress aesthetics in terms of form is developed. This reconstructed framework consists of three sets of antagonistic representational styles: closed form/open form, linear form/painterly form and multiplicity/unity. Closed form/open form represented in dress can be classified by the clear or obscure silhouette shown not o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ress and space around the dress, but also from changeability or invariability of dress in relation to the body. The material, pattern and various design elements are used as the central criteria to determine the linear/painterly characteristics in dress representations. Finally, the multiplicity/unity can be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hole and the parts. Multiplicity is represented in dress when the parts have a visual priority over the whole, whereas unity is represented when a dress as a whole has visual priority over the parts. A dress represented with closed form, linear characteristic and multiplicity is perceived as a clear form. In contrast, a dress with open form, painterly characteristic and unity is understood to be an obscure form.

It can be said that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establish the formative perspectives for analyzing the form of dress in various periods, cultures and races for the future studies.

Key words: formative perspectives(시형식), closed form/open form(단회형/열린형),  
linear/painterly(선적인 것/회화적인 것), multiplicity/unity(다원적 통일성/단일적 통일성)

## I. 서론

복식, 회화, 조각, 건축을 포함한 조형예술의 양식에 있어 형식은 내용의 존재방식이며 대상의 표면현상으로 특별한 미 또는 성격이 직접 표출된 외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예술양식에 있어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Wölfflin은 새로운 미적 감각을 발동시키는 눈의 시각적 태도에 주목하여 예술작품의 본질을 파악하였으며 보는 방식과 표현하는 방식이 결합된 개념으로 예술의 재현 형식을 해석하였고 이에 대한 규명이 예술사의 가장 근원적인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논의를 토대로 도출한 '시(視)형식'의 개념은 시대적 상황이 허용하는 시각적 가능성인 시각적 층 안에서 재현되는 보는 방식과 표현하는 방식이 결합된 의미로서의 형식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시각예술에 있어 보편적인 재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식에서도 그것을 구축하는 시각적 층이 존재하며 그 안에서 형식이 실현된다.

복식은 균형, 비례, 질서, 구성과 같은 형식적인 성질에 의해 시각적인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그 대상을 가시화하는 형식의 과정에 대상을 창조하거나 감상하는 주체-개인, 시대, 민족-의 주관성은 반드시 개입한다. 복식미를 판단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미와 주관적인 미의 개념이 동시에 작용하며 모든 양식은 내용과 형식이 조화로우며 구성되어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복식은 형식을 빌어 내재적 가치를 구현하며 내재적 가치를 빌어 형식을 창출한다. 따라서 특정한 복식양식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시화되어 구현된 형태와 방식, 즉 형식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복식의 형식은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고찰, 분석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Wölfflin의 시형식을 근간으로 한 DeLong의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을 기본적인 분석틀로서 가감 없이 적용하였고 단순한 형태 분석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형식을 그 시대의 미적 취향과 미적 요구가 실현되는 틀로 규정하고 기존의 시형식 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적합한 조형적 특성을 추가하여 복식의 형식미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이론적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Wölfflin의 시각적 허용 가능성에 근거한 예술의 재현양식과 DeLong의 복식 조형을 보는 시각을 고찰하였다. 둘째, 두 학자의 이론을 토대로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 틀을 도출하는데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함을 발견하였고 이를 보완하였다. 셋째,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을 도출하기 위해 몸·복식·공간의 상호관계를 토대로 복식의 실루엣, 내부형, 구조형, 재질, 문양 등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식미를 분석하기 위한 객관적이며 시지각적인 이론적 틀이 정립되는 도출 과정과 새롭게 개발된 다섯 쌍의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을 제시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형식은 앞으로 이어질 다양한 시대, 문화, 민족의 복식에 표현된 형식미를 고찰하기 위한 분석틀이 확립될 수 있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II. 예술과 복식에 표현된 시형식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인간은 언제나 보기 원하는 대로 본다. 본다는 것, 즉 시각적 활동은 인간과 세계의 구조 속에 내재해 있는 인간의 세계에 대한 가치 인식을 전제로 하는 '인간의 의지적 활동'이다.<sup>1)</sup> 이러한 시각적 활동을 예술적 활동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인지하고 가시성을 예술가의 표상적·창조적·조형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예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형식적 양식을 중심으로 예술사를 서술하였다. 그 대표적인 학자들이 Fiedler, Hilderbrand 그리고 Wölfflin이다.<sup>2)</sup> 이들 중 Wölfflin은 새로운 미적 감각을 발동시키는 눈의 시각적 태도에 주목하여 예술작품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였다.<sup>3)</sup> Wölfflin의 논의를 토대로 도출한 시형식의 개념은 시대적 상황이 허용하는 시각적 가능성인 '시각적 층' 안에서 재현되는 보는 방식과 표현하는 방식이 결합된 의미로서의 형식이다.

본 장에서는 시형식을 그 시대의 미적 취향과 미적 요구가 실현되는 틀로 규정하고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근간을 마련하기 위

해 Wölfflin과 DeLong의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Wölfflin의 시형식 이론

Wölfflin은 보는 것과 표현방식, 즉 시형식으로 예술양식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조형예술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형식이며 하나의 완전한 형식 분석은 필연적으로 정신적인 것의 파악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예술사가의 최초의 과제는 직관형식의 분석이며<sup>4)</sup> 미술사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시대별 예술양식에 나타난 시형식의 규명이라고 주장하였다.<sup>5)</sup> 시형식을 규명하기 위해 그는 여러 세기에 걸쳐 조형예술의 근저에 깔려 있던 지각의 방식을 분석하고 양식의 두 가지 근원인 내용을 이루는 표출로서의 양식과 형식을 이루는 표상으로서의 양식을 통한 다섯 쌍의 대립 개념을 제시하였고 16세기와 17세기를 각각 하나의 양식 단위로 설정하여 두 시대의 보는 방식과 형식표상에만 관련 있는 순수한 형식적 개념을 다음의 기초개념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형식에 표현된 선적(linear)인 것과 회화적(painterly)인 것이다. 선적이란 예술작품에 재현된 사물의 느낌이나 아름다움을 윤곽선에서 우선적으로 찾은 것을 의미하며 보는 방식이 테두리를 따라 움직여 외곽을 어루만지듯 진행시키는 것으로 형태의 구분이 명료하며 사물을 존재하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객관적 성격을 띠며 대상을 고정되고 가촉적(可觸的)인 양태에 따라 파악하고 표현한다. 이와 반대로 회화적이란 윤곽선에 대해 무관심하여 덩어리를 통해 보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상을 반점 형태(색채 또는 명암)로 파악하며 경계가 강조되지 않는 양식이다. 보이는 상(像)을 재현의 토대로 삼아 '현상'만을 포착하는 것으로 시각에만 의존하며 재현된 것으로부터 동떨어진 불확정성을 보여준다. 회화적인 것의 특징은 생동감으로 사물을 넘나드는 운동감을 윤곽을 강조하지 않아 결합이 도모된다.

둘째, 평면성(plane)과 깊이감(recession)이다. Wölfflin은 그림 속에 묘사되는 대상의 배열을 통해 평면성과 깊이감은 성취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속 인물이나 사물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 평면성은 고전주의 양식의 특징으로 르네상

스 예술가들은 단축법과 깊이감의 구사가 가능했음에도 의식적으로 평면을 본연의 직관형식으로 선택하여 고요와 명료함, 단순화된 인상을 추구했다. 좌우 병립이 특징이며 작품을 감상하는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모습을 띠므로 내진효과가 느껴지지 않으며 감상의 올바른 시점을 정면으로 고정한다. 반면 깊이감은 전경과 후경의 관계를 강조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깊숙이 들여다보게끔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동감과 결부된 깊이감의 미를 추구한다. 광선 효과와 원근법을 적용하여 전경과 후경 간의 극적인 관계를 성립하며 내진적 동세를 강조한다. 감상의 올바른 시점을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감상자의 시선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한다.

셋째, 폐쇄형(closed form)과 개방형(open form)이다. 폐쇄형은 예술작품이 완벽하고 정적 균형을 이뤄서 완전무결한 형태여야 한다는 원리로 기념비적 장면 연출과 장중한 효과 창출에 있어 필수적인 정대칭 구도와 규칙성을 지녀야 한다는 고전주의적 양식을 의미한다. 수직적, 수평적 요소 간의 대비로 완벽한 정적 균형을 이루며 배열에 있어 일정한 법칙이 적용된다. 그림의 화면은 화폭에 의해 구속되며 시점은 역시 단순 시점을 선호한다. 개방형은 유동적인 균형을 추구하며 작품 안의 중앙축 설정을 거부하는 양식이다. 수직적, 수평적 요소의 노골적인 대비는 피하며 사선구도를 이용하여 폐쇄성을 저지한다. 불완전한 형태로 재현되어 생동감이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선호하며 화폭과 화면 간의 관계, 구속력은 깨어진다. 단순 시점은 퇴보하며 우연적인 순간을 추구한다.

넷째, 다원성(multiplicity)과 통일성(unity)으로 이 대립개념은 전체 주제에 대한 부분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다원적 통일성은 전체 안에서의 개별 부분들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마치 하나의 법칙 하에 놓여 있는 것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모든 것이 균등하게 강조되는 것으로 독립적인 부분들의 조화를 통해 통일성을 달성한다. 다원적 통일성에서의 부분과 전체의 관계는 부분들을 자유로운 구성요소로 독립시키며 개별 초점이 병립하여 모든 것이 균등하게 강조되는 것을

<표 1> Wolfflin의 예술작품에 표현된 시형식

고전적 재현양식			바로크적 재현양식		
선적인 것	선이 지배적 뚜렷한 윤곽선 축각과 시각 객관적 양식		회화적 인 것	덩어리 강조 생동감 시각 주관적 양식	
평면성	평면 고요와 명료함 좌우병립 시계(視界)적 감상시점		깊이감	운동감 전경과 후경간의 내진적 동세 원근법 감상자의 다양한 시점	
폐쇄성	정적 균형 규칙성 화폭에 구속되는 화면 단순시점 선호		개방성	불완전한 형태 불규칙성 생동감 느껴지는 아름다움 선호 화폭, 화면간의 관계 구속력 없음	
다원적 통일성	전체 안에서 개별 부분의 독립성 유지 모든 면이 균등하게 강조 독립된 부분들의 조화		단일적 통일성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귀속 개별적 부분의 분리 불가능	
명료성	사물의 완벽한 재현 절대적 명료함 생동감 결여		불명료성	완벽하지 않은 형태 모호함으로 감상자에게 새로운 여운을 줌 중요한 특징 전달 중요 불분명한 형태로 운동감 표현 중첩의 효과	

의미한다. 통일성은 부분들이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귀속됨을 의미하며 그 안에서 개별 부분을 떼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전적 양식에 표현된 형태나 색채의 명백한 대비는 융합이라는 원칙에 의해 대체되어 통일성을 구현한다. 융합은 개별 부분의 독립적 기능의 해체와 주요 테마의 강조를 통해 이뤄진다. 통일성은 전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부분간의 균등한 독립성은 거부되고 개별 부분들이 하나의 주제로 귀속되는 것이다.

다섯째, 명료성(absolute clearness)과 불명료성(relative clearness)으로 구분되는 시형식이다. 명료성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 모든 재현 수단을 동원하여 절대적 명료함을 근간으로 하는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양식이다. 대상을 완벽하게 노

출하거나 형태를 명백하게 묘사한다. 실루엣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표현하며 광선, 음영, 색채 등은 형태적 명료함을 드러내기 위한 요소로서 적용된다. 불명료성은 마치 화면이 감상자를 특별히 의식한 듯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거나 형태를 모호하게 흐리는데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불확정적인 것에 대한 선호를 나타낸다. Wolfflin은 이것을 “불명료함을 통해 달성되는 명료함”<sup>6)</sup>이라고 했다. 불분명한 실루엣, 비합리적인 광선의 구사, 불명료하거나 집중된 색채를 이용하여 불확정적 여운을 남기는 형태가 불명료성의 특성이다. 불명료성은 중첩의 요소를 활용하여 완성되는데 중첩은 형태 앞에 형태, 겹쳐진 것 앞에 겹치는 것을 의미한다. 중첩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차원의 외양을 즐길 수 있게 하며 궁극적

으로는 형태의 모호성을 수반한다.

이상에서 고찰한 Wölfflin의 예술작품에 표현된 시형식을 다음과 같이 <표 1>로 정리하였다.<sup>7)</sup>

Wölfflin은 순수한 직관을 통해 가시화된 형식에 따라 회화, 조각, 건축의 실제 작품을 비교하여 르네상스적인 시형식과 바로크적 시형식으로 구분하였다. 시대별 예술작품에서 시형식이 상이하게 나타난 이유를 시대별 재현의지, 시대가 선호하는 대상, 시대별 보는 방식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한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형식이 다른 시대에 이르러서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동일한 주제, 동일한 구도를 취하였어도 르네상스와 바로크 예술은 다른 양상으로 재현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시형식에 있어 시대별 수용 형식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각 시대는 제각기 다른 표현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sup>8)</sup>

## 2. DeLong의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Wölfflin이 제시한 시대별 예술양식에 나타난 보는 방식, 즉 시(視)형식을 복식의 형식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복식학자가 DeLong<sup>9)</sup>이다. 그는 의복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인체와 그 위에 착용된 의복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의복과 인체가 구성하는 구조(Apparel-Body-Construct: ABC)를 하나의 시각 형태(visual form)로 정의내리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ABC에 대한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관찰을 실시하였다.

인체 구조의 변형이자 해석<sup>10)</sup>인 ABC는 인체의 표면과 부분 그리고 인체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인체의 곡선이나 표면은 ABC에 의해 드러나거나 은폐된다. ABC는 인체의 표면, 인체의 부분, 인체의 움직임, 그리고 인체에 대한 의미 연상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형성하여 시각적 다양함을 제공한다. 특히 DeLong은 의복과 인체, 의복과 공간의 관계에서 관찰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시각적 우선성을 복식조형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복식과 인체 중 인체가 우선적으로 인지되는 '인체 우선형'과 복식이 주가 되어 인체는 단지 옷걸이 역할만 하는 '복식 우선형'으로 구분하였다.<sup>11)</sup> 이

와 비슷한 논의로 Roach와 Eicher가 제시한 인체와 복식의 주종관계를 들 수 있겠다.

DeLong의 이론<sup>12)</sup>은 복식의 형식을 분석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관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를 제공했으며 Wölfflin의 시형식을 근간으로 도출한 복식조형을 보는 다섯 쌍의 대립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ABC가 주변 공간과의 관계에서 형성하는 의복의 실루엣의 명료성에 따라 폐쇄형(closed)과 개방형(open)으로 구분하였다. 폐쇄형은 경계선으로 작용하는 실루엣을 가진 '자기수용형'으로 형태와 공간 사이의 대조적 명도나 실루엣의 연속적인 가장자리에 의해 주변 공간으로부터 고립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관찰자의 시각 운동은 명백한 실루엣에 둘러싸인 내부에 국한되어 관찰자는 ABC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개방형은 ABC가 마치 주변과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여 실루엣이 주변공간에 융합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관찰자의 시각운동은 불명확한 실루엣에 주목하지 않고 ABC의 중심이나 표면으로 향한다.

둘째, ABC와 그 세부 항목들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느냐에 따라 형태를 분류하는 전체형(whole)과 부분형(part)이다. 전체형은 관찰자가 전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부분들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의존적일 때 전체로서 관찰되는 형태이다. 부분형은 관찰자의 시선을 끄는 뚜렷한 부분이 존재하여 그 부분을 먼저 보고 난 후에 전체를 보는 형태이다. ABC 내의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부분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모양이 바탕으로부터 뚜렷이 구별되는지 아니면 바탕과 통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간분리형(planar separation)과 공간통합형(integration)으로 구분된다. 전체 ABC에서 부분의 공간적 관계를 표현하는 모양-바탕은 관찰자의 인식에 의해 관찰자와 ABC 사이의 공간 관계를 의미한다. 모양은 ABC를 볼 때 구체적인 형을 가지는 것으로 바탕으로부터 부각되는 요소이다. 이 관계는 관찰자가 설정한 초점에 따라 관계가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는 모양-바탕의 다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찰자에 의한 시각적 우선순위의 전환, 번복이 가능하다.

<표 2> DeLong의 ABC(의복인체구조)를 보는 시각

시각 효과	ABC의 조형적 특성	시각 효과	ABC의 조형적 특성
폐쇄형	경계선으로 작용하는 실루엣을 가진 자기수용형 분명한 가장자리 주변공간으로부터 고립 관찰자의 시각 운동이 실루엣에 둘러싸인 내부 에 국한	개방형	ABC와 주변이 상호 의존적이어서 경계가 모 호 실루엣이 그것을 둘러싼 공간과 연결된 듯이 보이는 많은 불연속성으로 구성 시각운동이 ABC의 중심이나 표면으로 집중
부분형	부분-전체형: 부분을 먼저 보고 전체를 관찰 관찰자의 시선을 끄는 여러 가지 뚜렷한 부분들	전체형	전체-부분형: 전체를 먼저 보고 부분들 관찰 뚜렷하지 않은 부분들
공간 분리형	구체적인 형을 가진 모양이 바탕과 뚜렷이 구별 되는 형태 모양과 바탕 분리	공간 통합형	모양과 바탕의 구별이 모호하여 통합되어 있는 형태: 모양-바탕의 다의성
평면형	인체 곡선을 반영하지 않는 표면 단순한 표면으로 재질이나 빛의 반사가 없는 경 우로 관찰자의 초점이 형에 집중	입체형	곡선형 윤곽과 인체 곡선 강조 인체를 감싸는 드레이퍼리 스타일 광택 있는 직물
명료형	분명하고 날카롭고 규칙적인 표면 모양과 바탕의 구분이 명확히 지각 시각적 질감 없으며 명암효과 가능성 낮음	불명료형	ABC의 불명료한 공간 점유방식 모양-바탕의 다의성 존재 공간의 단계가 많아 흐릿하거나 부드럽게 지각 명암효과 가능성 높음

넷째, 관찰자가 ABC의 한 면을 볼 때 그것을 2차  
원적으로 혹은 3차원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평면  
형(flat)과 입체형(rounded)으로 구분된다. ABC 표  
면이 인체 곡선을 반영하지 않는 단순한 표면의 경  
우 관찰자의 초점은 형에 집중하게 되어 형이 관찰  
의 우선성을 갖게 되는 것은 평면형이다. 주로 밋밋  
하고 단순한 표면을 가진 검정색 의복에서 보이는  
형식이다. 입체형은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는 형태로  
인체를 둘러싸는 드레이퍼리 형식이나 광택 있는 직  
물로 강조되는 형태이다.

마지막 대립개념은 명료형(determinate)과 불명료  
형(indeterminate)으로 ABC의 표면 두께와 관찰자로  
부터의 거리를 언급하는 것으로 관찰자가 ABC의 표  
면을 얼마나 가깝게 혹은 멀게 지각하느냐와 얼마나  
쉽게 파악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명  
료형은 분명하며 날카롭고 규칙적이고 깨끗한 표면  
을 묘사하는 것이다. 문양은 작고 단순하거나 전체적  
으로 반복되는 규칙성을 띠며 모양과 바탕의 구분이  
명확히 지각되는 것이어야 한다. 시각적인 질감은 거  
의 없으며 명암에 의한 효과의 가능성도 낮다. 관찰  
자는 명료형의 표면을 빨리 인식한다. 반면 불명료형

은 ABC가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이 덜 명료한 것을  
의미한다. ABC의 불명료성은 모양-바탕의 다의성이  
존재하여 모양-바탕 관계가 모호하며 시각적 재질감  
과 명암효과를 창조해내는 표면에 의해 창조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DeLong이 도출한 ABC라는 시  
각 형태를 보는 다섯 쌍의 대립개념을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2>.

### Ⅲ.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 개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Wölfflin의 이론  
을 채택하고 여기에 DeLong의 복식조형을 보는 시  
각을 대입하여 복식에 나타난 시형식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근간을 제시하였다. 두 학자가 제시한 시형식  
분석에 있어 예술과 복식에 적용된 기준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두 학자가 중요하게 보았던  
시형식의 분류기준을 살펴보고 차이점과 문제점을  
지적한 후,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두 가지 유형의 시  
형식을 바탕으로 복식미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형식 틀을 개발하고자 한다.

## 1. Wölfflin와 DeLong의 시형식 이론의 한계점

Wölfflin은 회화, 조각, 건축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예술양식을 형식 위주로 분석하였고 DeLong은 몸 위에 착용된 복식을 대상으로 그 형태에서 우선적으로 보이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 두 학자의 시형식론을 토대로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 틀을 도출하는데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함을 발견하였고 그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이란 몸이라는 물리적 구조를 고려하여 그 조형성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에서 고려하지 않는 몸의 움직임이 조형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인자로 등장한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몸과 복식의 조형성은 다르며 몸의 움직임, 자세, 태도에 따른 복식의 조형성은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한다. 몸의 움직임은 복식조형을 완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학자 모두 대상 자체의 움직임과 이에 따른 조형성을 보는 시각을 고려하지 않았다. 불변성을 필연적 속성으로 가지는 예술작품에서 조형적 가변성은 논의가 불가능하다. 예술작품은 본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아무것도 변화되거나 바뀌어져서는 안되며 오로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sup>13)</sup> 예술작품은 하나의 조형물로 완성된 이후 그 형식은 변화할 수도 변화될 수도 없다. 따라서 Wölfflin의 논의에서 언급되는 운동감 또는 생동감의 개념은 작품 내부에 국한된 시각적 움직임 혹은 흐름에 의해 창출되는 시각적 운동감을 의미한다.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을 연구한 DeLong은 몸을 복식의 형식을 분석하는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였다. 그가 설정한 시각 형태는 의복을 착용한 인체이다. 인체의 움직임은 ABC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며 ABC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은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다섯 쌍의 시형식 개념을 논의할 때 몸의 움직임이 복식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의 이론에서 몸은 단지 복식을 위한 기본 골격으로서 부동의 상태를 유지한다. 복식을 통해 드러나는 몸은 복식의 조형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로서 형식을 완성하는데 국한된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몸과 복식의 상호작용을

인체의 형태가 복식에 의해 얼마나 드러나느냐는 폐쇄적 관점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 몸의 움직임이 복식의 움직임이나 그것이 초래하는 형태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대상은 몸 위에 착용된 복식이다. 따라서 몸의 움직임에 따른 복식의 변화를 제외할 수 없다. 몸과 복식의 움직임은 복식의 조형적 특성에 의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형식에서 몸과 복식의 움직임은 중요한 기준요소로서 사용될 것이다.

둘째, 형식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관찰 범위의 문제가 대두된다. Wölfflin의 시형식 분석은 예술작품의 내부로 제한된다. 다섯 쌍의 대립개념으로 형식을 분류하는데 있어 조형물의 실루엣이나 외부와의 관계보다는 내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특정 시형식을 형성하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2차원적인 회화에서 나타나는 평면성과 깊이감은 그림 속 인물이나 사물의 배열을 통해 완성된다고 하였다. 본질적으로 평면성을 띠는 회화가 깊이감을 갖기 위해서는 인물이나 사물의 배치를 통해 내진감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이나 조각을 논할 때에도 그 외적인 측면보다는 건축물의 내부형이나 조각의 표면 등과 같은 내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DeLong은 공간적 범위를 포함하였다. 즉 대상이 차지하는 시각적,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분석하였다. 복식과 외부환경, 복식과 몸, 복식의 내부를 관찰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Wölfflin의 논의와의 차이점은 DeLong이 선정한 분석의 범위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불변의 예술작품이 아니라 자신이 규정한 개념에 적합한 대상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였다. 예를 들면, DeLong이 각각의 시형식의 사례로 제시한 이미지들에서 복식과 주변 공간의 색이나 몸의 움직임과 자세, 조명 등은 시형식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해 조작적으로 선택된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적인 조작이 가능한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공간이라는 물리적 개념과 복식의 경계를 확정하는 윤곽선과 공간 내에서 움직임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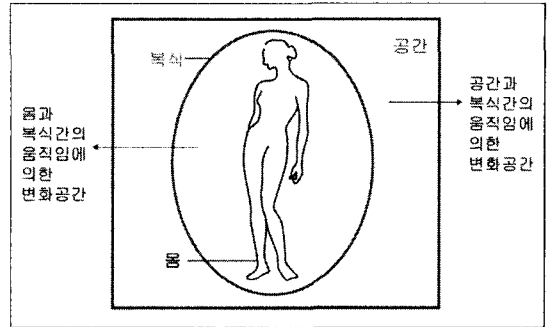
셋째, 시형식을 분석하는데 있어 정신적 측면의

반영 여부이다. Wölfflin은 무엇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즉 예술의 주제와 표현방식을 시대별로 구분하면서 형식에 시대의 정신적 측면이 반영됨을 언급하였다. 개인양식, 민족양식, 시대양식 등이 영향을 미쳐 각 시대별 보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했으며 시대마다 다양한 시형식이 등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Wölfflin의 시형식은 예술의 표현적,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 시형식을 통해 당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보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DeLong의 시형식은 미의식이나 취향과 같은 정신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는 몸, 복식, 주변공간의 관계를 관찰, 조사, 해석, 평가의 단계를 거쳐 ABC에서 우선적으로 부각되는 형태적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DeLong의 연구에서 복식이 상징하는 내용적 측면은 중요한 논점이 아니었다.

## 2.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선정한 조형요소

본 연구에서 복식에 표현된 시형식을 도출하기 위해 선정한 분석 대상은 '특정 공간을 점유하는 몸 위에 착용된 복식'이다(그림 1). 복식조형에서 몸이라는 물리적 구조의 중요성과 복식과의 불가분성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몸은 복식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구조로서, 몸에 대한 이상미가 변화하면 복식의 형태도 이를 반영하여 변화한다. 과거 수 세기 동안 이상적인 몸에 근접하기 위한 시도는 복식을 통해 이뤄졌다. 복식은 몸의 특정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무시하고 혹은 과장하여 다른 특정 부위를 강조한다. 또한 몸의 형태나 표면은 복식을 통해 드러나거나 암시 또는 은폐된다. 복식은 몸의 표면, 부분, 움직임, 몸에 대한 의미 연상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형성하여 시각적으로 다양한 형식을 제공한다.

복식은 몸이라는 기본구조를 토대로 형태·색채·재질·무늬와 같은 조형적 요소를 가지고 비례·균형·조화·통일이라는 디자인 원리를 통해 하나의 미적 조형물로 완성된다. 형태는 점·선·면·입체의 구성요소에 의해 형성되는 가장 본질적인 시각적 요



<그림1> 복식·몸·움직임·공간의 관계

소로 선으로 둘러막힌 평면에 깊이가 첨가된 입체의 공간을 의미한다. 인체 위에 착용되는 복식은 3차원의 형태(form)와 2차원의 형(shape)을 다 사용하며 형과 형태간의 다차원적 상호작용에 의해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복식에서 2차원적 디자인은 문양과 같은 장식적 디자인과 주머니, 칼라(collar), 요크선, 커프스(cuffs)와 같은 평면으로 지각되는 구조적 디자인으로 이루어지며, 3차원적 디자인은 의복의 성능이나 맞춤새(fit)에 영향을 미치는 실루엣과 같은 구조적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4)</sup>

복식의 형태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Horn과 Gurel<sup>15)</sup>은 복식의 형태를 인체 자체의 형, 복식 실루엣에 의해 창조되는 외부적인 형, 실루엣 내에서의 각 부분들의 외곽선의 기본적인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며 김민자<sup>16)</sup>는 실루엣, 내부형(inner form), 구조형(structure form)으로 구분하였다. 김혜연<sup>17)</sup>은 복식의 형태는 인체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복식 소재의 재질적 특성에 의해 형태가 유지되는 구조적 형태와 인체의 형태에 의존적인 비구조적 형태로 분류했다. DeLong은 복식의 형태를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형태와 관련된 구조로서 보았으며 색채, 재질, 선, 형 등 형태를 이루는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형태로서의 ABC는 인체 위에 착용된 모든 대상을 포함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내리고 있다. 본 연구는 김민자가 구분한 복식의 3가지 형태와 재질, 문양을 기본적인 조형요소로 선택하여 시대별 복식의 형식을 분석하겠다.

복식의 조형요소를 살펴보면, 실루엣은 착용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의복형태의 외곽선<sup>18)</sup>으로 복식을



공간으로부터 독립시켜 그 존재를 명료하게 하는 틀<sup>19)</sup>이다. 복식의 실루엣은 인체 위에 착용된 의복의 3차원적 형태를 2차원적으로 해석 가능하게 한다. 실루엣은 복식 그 자체이며 복식의 특징을 대표하는 기본적인 선으로 실루엣 내부의 개별적인 선과 장식 선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 존재한다. 실루엣은 디자인의 근간을 이루며 시대와 문화,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창조되어 유행의 역사를 분류하거나 유행의 주기를 분석하기 위한 전형적인 척도로 사용되어 왔다. 실루엣이 복식의 형태를 분석하는데 있어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인지되어 첫인상을 결정하며 복식과 공간을 분리하는 틀로서 인체 구조로부터 오는 윤곽선이자 동시에 몸에 대한 이상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조형요소이기 때문이다. 복식의 내부형<sup>20)</sup>이란 한 형의 내부에서 각 부분들 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형으로 인체 부위에 따른 한계에 의해서 형성된 형태를 의미한다. 목, 가슴, 허리, 엉덩이, 팔, 다리의 인체부위는 네크라인, 칼라, 보디스의 형, 허리선, 소매, 스커트, 바지, 셔츠, 드레스, 재킷의 스타일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몸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부형은 의복 구성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디테일(detail)과 부속 장식품인 트리밍(trimming)과 같은 장식적 디자인을 위한 형도 포함한다. 구조형<sup>21)</sup>은 복식 구조에 따라 보이는 일종의 내부형 또는 내부선으로, 평면의 옷감을 인체에 맞도록 입체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형이나 선을 포함한다. 술기, 다투(dart), 프린세스 라인(princess line), 주름, 플리츠(pleats), 개더(gather) 등이 구조형에 속한다. 복식의 실루엣, 내부형과 구조형 모두 평면의 옷감을 인체에 맞도록 입체화하는 구조적인 디자인 과정에서 결정되며 이 중 내부형은 장식적 디자인의 과정에서도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 목적에 따라 장식적 또는 구조적 디자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형태 외에 재질과 문양 역시 복식의 형식미를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조형요소들이다. 재질<sup>22)</sup>은 의복을 만드는 실제적인 물질로 시각, 촉각, 청각의 세 가지 감각 모두를 요구하는 디자인 요소이다. 재질의 시각적 특성은 표면 형태와 빛의 반사력에 의해 결

정되며 촉각적 특성은 촉감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옷감의 촉감은 인체 외형의 크기를 조작할 수 있는 착시를 창출하거나 인체 주변의 공간에서 복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언급하기 때문에 복식의 형식을 분석하는데 있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성질이다. 촉감 중 옷감의 유연성은 의복의 실루엣이 인체의 윤곽에 대하여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문양<sup>23)</sup>은 선, 공간, 형이라는 조형요소에 부속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시각효과를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문양은 인체의 크기 강조, 시각적 흥미 유발, 실루엣에 대한 흥미 분산 등 다양한 물리적 효과를 창출하며 동시에 남성적/여성적, 활기/우아, 복잡함/느슨함, 단순함/활동성 등과 같은 심리적 효과 역시 창출한다.

위에서 나열한 복식을 착용하는 몸, 복식의 형태를 구성하는 실루엣, 내부형, 구조형과 재질, 문양을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을 분석하기 위한 조형요소로 채택하였다. 복식의 조형요소 중 색채가 형식에 미치는 조형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 3.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 도출 과정

Wölfflin과 DeLong은 각각 예술과 복식의 형식을 보는 다섯 쌍의 대립개념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대립개념을 규정하는 조형적 특성-예술작품에서는 재현 양식 그리고 ABC에서는 시각적 우선성의 특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분류 기준으로 설정하여 예술과 복식을 보는 방식을 규명하였다. Wölfflin의 시형식론을 적용한 복식의 형식을 보는 시각은 DeLong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고 그가 완성한 분석 틀은 복식의 형태 분류에 관한 연구에서 이론적 근간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틀을 단순히 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Wölfflin의 이론을 기본구조로 하고 여기에 몸을 포함시킨 DeLong의 이론을 접합하고 그 안에 내재한 한계점들, 그리고 복식의 형식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된 조형요소를 토대로 시형식을 분석하기 위한 객관적이며 시시각적인 새로운 분석 틀을 개발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정은 예술의 재현양식과 복식 형식에서 시각적 우선성을 갖는 조형성을 고찰한 후, 이로부터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에 적합한 특성을 추출하는 것이다. 예술형식과 복식의 폐쇄형/개방형과 같이 형식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상응하는 대립쌍은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여 복식의 시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이 과정은 DeLong이 자신의 시형식 도출을 위해 선택한 방법으로 Wölfflin이 제시한 조형적 특성을 복식에 표현된 시각적 우선성을 구분하는 특성으로 차용하였다. 예술과 복식에 나타난 폐쇄성과 개방성은 모두 분석 대상의 윤곽선의 명료성/불명료성에 의해 결정되는 형식이다. 회화의 경우 화폭이 화면을 구속하여 화면 속 형태 배치에 영향을 미쳐 폐쇄성을 이룬다고 한다면 복식은 실루엣이 주변과의 경계선으로 작용하여 관찰자의 시각운동을 내부에 국한시켜 폐쇄성을 이룬다. 윤곽선이 경계로 작용하지 못할 때 회화와 복식 모두 개방성을 띤다. 예술작품에 나타난 다원성/단일성은 복식의 부분형/전체형과 그 분류기준이 거의 동일하다. 명료성과 불명료성 역시 예술에서나 복식에서나 거의 유사한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예술작품에서의 명료성은 보이는 모든 것을 명료하고 완벽하게 재현하는 형식을 의미하며, 복식에서의 명료성은 분명한 실루엣에 의해 복식의 형태가 쉽고 정확하게 파악되는 형식을 의미한다.

두 번째 과정은 Wölfflin과 DeLong이 제시한 각 시형식의 조형적 특성이 특정한 시대적, 지역적 범위 내의 복식미를 고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이를 어떻게 보완하여 새로운 분석틀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시형식은 평면성/깊이감(입체성)의 대립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복식의 형식에서 논의되는 평면성과 입체성은 구조적/비구조적 복식 형태로 구분된다. 의복 구성에 따른 구조적/비구조적 형식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분류는 연구의 범위에 따라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첫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설정된 복식이 서양복식으로 국한될 경우 모두 본질적으로 구조적 형식일 수 있으며 둘째, 비구조적 구성에 의한 평면성은 동양복식이나 서양의 고대 복식 모두에서 나타

나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한복이나 기모노와 같은 동양복식과 고대 그리스의 키톤은 재단시 인체의 형태를 무시하였다. 그러나 동양복식과 달리 서양의 고대 복식은 그 구성은 비구조적이지만 결과물은 인체를 완벽히 은폐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대복식은 한 장의 천을 이용하여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형태로 드레이프된 것이다. 중세 말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복식 재단법이 개발된 이래로 서양복식은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입체성을 띤다. 구조적 디자인은 의복의 기능 및 인체의 구조와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2차원의 옷감이 3차원적인 인체의 부피를 담고 동작, 차원 변화, 보호를 허용함과 동시에 윤곽을 따를 수 있는 속이 빈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sup>24)</sup>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입체성을 지닌 서양의 근대복식이나 구조적 평면성을 지닌 동양복식에서 평면성과 입체성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DeLong이 정립한 평면성과 입체성의 개념 역시 다양한 복식 형태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가 기준으로 설정한 복식을 통한 몸의 노출 정도는 현대패션에만 국한되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과거의 복식이나 동양복식의 형식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과거 여성 복식에서 몸 전체의 실제 곡선을 드러내는 사례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여성의 몸을 드러내는 부분은 가슴과 허리로만 국한되고 하체는 철저히 은폐되었다. 복식의 평면성과 입체성을 구성에 의한 개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분류할 보편타당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몸의 형태 노출이 아니라 DeLong이 간략하게나마 제시한 몸과 복식의 상호작용, 즉 몸의 움직임에 대한 복식 형태의 가변성/불변성의 관점으로 시형식을 논하겠다. 몸과 복식의 상호작용은 복식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보는 기준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에 따라 복식의 실루엣이 변화하는지 불변하는지 결정되므로 복식과 윤곽선과의 관계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Wölfflin이 제시한 평면성/깊이감의 개념은 복식의 표면을 기준으로 분석이 가능하겠다. 복식 표면을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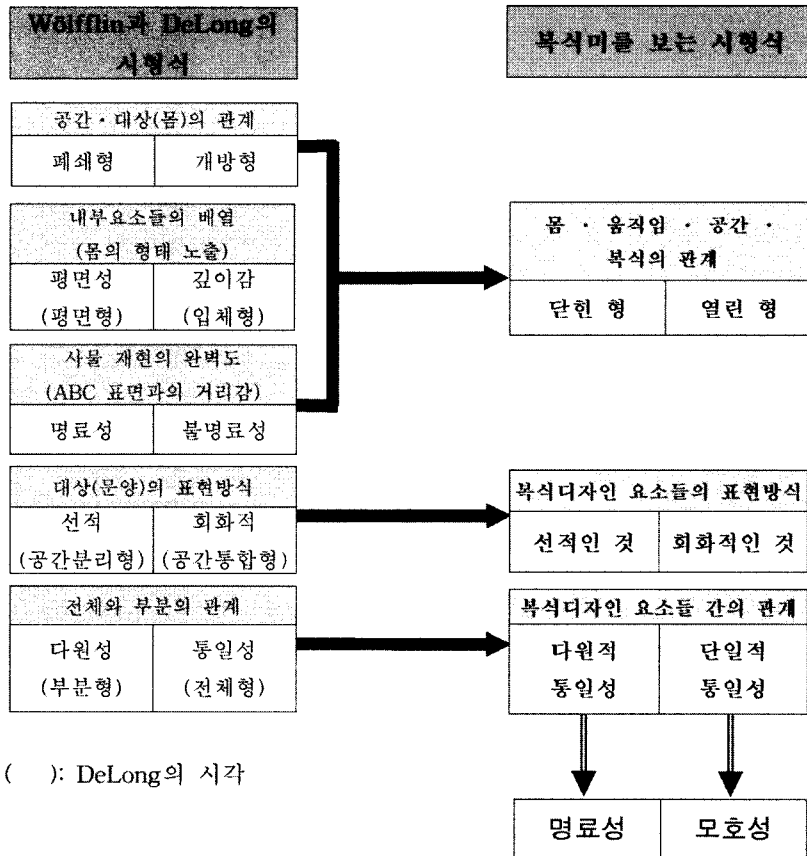
식하는 입체적인 디테일이나 트리밍과 드레이프가 있으면 깊이감으로, 아무런 장식 없이 매끈한 경우 혹은 장식이 있더라도 깊이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경우 평면성이 강조된다. Wölfflin의 개념 역시 복식의 실루엣을 명료하게 혹은 불명료하게 하는 하위개념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이 대립 개념 역시 복식과 윤곽선의 관계에 포함하여 다루겠다. 이상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새로이 정립된 몸과 복식의 상호작용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평면성/깊이감(입체성)은 독립적인 시형식으로 규정되지 않은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세 번째 과정으로 Wölfflin과 DeLong이 제시한 시형식의 내용이 서로 상응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 예가 예술작품에서 나타나는 선적/회화적인 형식으로서 대립쌍으로부터 복식을 보는 방식은 도출하지 않았다. 대신 DeLong은 문양을 구성하는 모양과 바탕이 명료하게 구분되는지에 따라 공간분리형과 공간통합형이라는 새로운 시형식을 도출하였다. Wölfflin은 선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며 관찰자로 하여금 “흡사 손가락으로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은 확신감을 불러일으키는”<sup>25)</sup> 표현방식을 선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관찰자의 시각이 물체를 따라 더듬는 손의 조작과 동일한 정도로 형태의 완벽한 재현이 이뤄진 상태를 의미한다. 그는 이를 ‘가촉적 유사성’<sup>26)</sup>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Wölfflin이 시형식 분류 기준으로 선정한 촉각적 형식과 시각적 형식을 차용하여 의복 소재의 재질감을 중심으로 선적/회화적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재질감이나 의복 표면을 장식한 디테일에서 느껴지는 가촉성을 기준으로 시각보다는 촉각을 강조하는 조형적 특성을 선적인 것으로, 촉각보다 시각이 우선되는 형식은 회화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분류하겠다. Wölfflin이 제시한 선적 취향, 즉 아름다움을 선에서 찾는지 여부를 반영하여 복식의 표면을 장식하는 문양의 외곽선이 명료한 선으로 인지될 때 선적인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 DeLong의 공간분리형 개념을 대입하여 문양의 모양과 바탕이 명료하게 구분될 때 선적인 취향이 더욱 강조된다고 보았다. 복식의 문양에 나타나는 회화적인 것은 선보다는 하나의 불연속적인 덩어리로 인식

되는 형식이다. 덩어리로 인지되기 위해서는 모양과 바탕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다의성을 띠고 있어 공간이 통합되어야 한다.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에서 재질과 문양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선적/회화적인 것은 디자인 요소의 표현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조형적 특성이다.

네 번째 과정은 대립개념 쌍을 분류하는 기준인 복식의 조형요소들을 선정한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루엣은 복식·몸·움직임·주변공간의 관계를 확정하는 중요한 조형요소이자 복식의 형식이 명료한지 또는 불명료한지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시형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식과 몸, 복식과 공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실루엣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전체 윤곽선을 완성하는 복식 내부형의 실루엣 역시 중요한 요소로 고찰되어야 한다. 주름, 솔기, 다트와 같은 구조형과 소재의 재질 또한 실루엣의 명료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형요소로서 반드시 고찰되어야 한다. 몸과 복식의 관계를 고찰할 때는 인체 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내부형이 포함된다. 복식에 나타나는 선적/회화적인 특성은 복식 디자인 요소의 표현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촉각과 관련 있는 재질과 장식적 내부형(디테일과 트리밍), 선적인 취향을 결정하는 문양을 통해 판단이 가능하다. 실루엣의 명료성도 선적/회화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용하지만 앞서 복식·몸·움직임·주변공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시형식의 분류 기준으로 이미 선정되어 고찰될 것이므로 반복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다원적 통일성과 단일적 통일성은 복식 전체와 부분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형식으로 복식 내부의 다양한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해야만 한다. 복식 전체와 내부형, 복식 전체와 구조형의 관계가 독립적인지 종속적인지 고찰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이 시형식 쌍은 복식디자인에서 중요시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재질과 문양 역시 복식 형식의 통일성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조적인 요소이다. 특히 복식의 장식적 요소가 전체에 대해 종속적인 형식을 띠는지 아니면 개별부분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다원적인

〈표 3〉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 도출



지 단일적인지 분류가 가능하다.

각 대립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 대상인 조형요소들을 선정한 기준은 조형요소들이 각각의 시형식을 가장 정확하고 명료하게 강조하거나 특정 시형식을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창출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다. 이들 조형요소는 복식의 형식을 완성하는데 있어 연속선상에 있으며 상호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 조형요소를 시형식에 따라 명료하게 분배하여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특정 조형요소를 특정한 시형식을 분석하는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각각의 시형식을 고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우선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요소들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과정은 앞서 제시된 모든 과정을 종합하여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을 재구성하고 정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의 새롭고 객관적인 분석틀을 도출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 4.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형식 틀은 세 쌍의 대립개념으로 재구성되었다. 첫째,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은 닫힌 형과 열린 형으로 나뉘질 수 있다. 이것은 관찰자의 시점에서 복식의 형태가 얼마나 쉽게 파악되는지의 문제이다. 복식의 형식을 닫힌 형과 열린 형으로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조형요소는 복식의 전체 윤곽선인 실루엣이다. 실루엣이 명료한지 불명료한지에 따라 복식과 공간의 관계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 실루엣은 몸의 움직임에 대해 불변성을 보일 때 닫힌 형으로, 반대로 움직임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가변성을 보일 때 열린 형으로 파악될 수 있다.

닫힌 형의 복식은 뚜렷한 실루엣을 경계로 복식이 점유하는 공간이 명료하고 복식 주변의 공간과 명확히 분리되는 것이며 동시에 관찰자의 시선은 윤곽선의 외부로 향하지 못하고 의복의 실루엣 안에 둘러싸인 내부에 국한되는 자기수용적이다. 닫힌 형은 명료한 실루엣 내에서 대칭구조와 규칙성으로 명명되는 폐쇄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 내렸다. 이 형식은 구조적 디자인에 의해 형성된 내부형이 명확히 제시되고 분명하고 날카롭고 규칙적이며 깨끗한 표면으로 구성될 때 두드러진다. 문양은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표면 전체를 장식하고, 모양과 바탕의 구분이 명확히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각적 질감이나 명암에 의한 효과의 가능성이 낮아 관찰자의 시각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복식의 형태를 빨리 그리고 명확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복식의 형태가 몸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실루엣은 그 뚜렷함이 그대로 유지되어 닫힌 형으로 구분된다. 닫힌 형의 복식은 몸과 복식 간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몸이 복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부터 기인한다. 인체의 형태가 무시되고 몸과 복식의 상호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의 복식은 장식이 없거나 단순하고 규칙적인 문양이나 장식과 같은 표면적 특성에 의해 2차원적으로 지각되는 경향이 있으며 의복 속에 감춰진 인체의 곡선이 반영되지 않아 기하학적인 면으로 먼저 지각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때 의복의 재질이 뻣뻣하고 무거울수록 형태의 불변성은 확고해진다.

열린 형은 실루엣이 명확하지 않아 복식이 점유하는 공간이 명료하지 않고 마치 공간과 복식이 연결된 듯 보이는 형태를 의미한다. 불연속적인 실루엣은 형태와 공간 간의 상호작용을 부추겨 관찰자의 시선이 몸과 복식 외곽으로 해체되는데 이를 열린 형이라고 한다. 실루엣의 모호함은 내부형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각 인체 부위에 따른 선이나 형의 실루엣이 모호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복식의 불분명한 윤

곽선은 한 면만을 볼 수 있는 관찰자의 눈을 의복의 외곽으로 실루엣을 해체시키며 복식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지하게 만든다. 모양과 바탕의 구분이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 변화하고 뛰어난 시각적 재질감으로 명암효과가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양은 불분명하여 시선을 끌지 못하는 것이어야 하며 불규칙적인 가장자리를 갖는 형태이어야 한다. 형태의 중첩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차원을 선호하는 것이 열린 형의 복식이다.

몸과 복식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열린 형을 정의하자면, 몸과 복식 간의 공간이 거의 없어 인체의 곡선이 드러나거나 몸의 움직임이 복식 형태에 영향을 미쳐 형태가 변화하는 가변성이 나타나는 형식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가변성은 복식을 통해 인체 곡선을 강조 내지는 관찰자의 시선을 인체의 외곽으로 해체하는 특성을 지녀 복식의 형태를 모호하게 한다. 의복의 재질이 부드럽고 광택이 많거나 투명할 때 몸의 노출이 두드러지거나 몸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 높아져 복식 형태의 가변성은 증가하게 된다.

몸과 복식의 상호작용은 복식과 공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닫힌 형의 경우 몸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몸의 움직임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명료하고 견고한 실루엣을 유지하여 공간 내에서 복식이 차지하는 범위를 확고히 한다. 반면 열린 형은 몸의 움직임에 따라 복식의 실루엣이 변화하여 공간과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공간 내에서의 점유하는 범위를 모호하게 한다. DeLong은 ABC의 움직임과 의복 소재, 착장방식(예를 들면, 닫힌 형인 재킷의 여밈을 열고 있을 때)에 따라 열린 형이 강조되어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7)</sup> 그러나 본 연구는 이미 몸 위에 완벽하게 착장되어 있는 복식의 형식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착장방식에 따른 시형식 변화는 제외하였다.

둘째, 선적인 복식과 회화적인 복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Wölfflin은 선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은 예술 작품을 관찰자가 볼 때 선을 먼저 보느냐 아니면 덩어리로서 지각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대립개념으로 도출해냈으나 DeLong은 이에 상응하는 대립개념을

〈표 4〉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

조형을 보는 시각	시형식	조형적 특성	시형식	조형적 특성
복식·몸·움직임·공간의 관계	연관형	복식과 공간의 관계 복식의 공간점유방식 명료함 뚜렷한 실루엣, 주변 공간으로부터 분리 분명하고 날카롭고 규칙적이고 깨끗한 표면 명확성, 균형, 규칙성→정형	연관형	복식과 공간의 관계 복식의 공간점유방식이 덜 명료 불연속적 실루엣: 실루엣과 주변 공간과 연결된 듯 보임 불규칙성, 불분명함, 비대칭→무정형 중첩의 요소
		복식과 몸의 관계 몸의 움직임에 대한 복식 형태의 불변성 인체곡선 반영하지 않는 표면→복식을 2차원의 기하학적 형태로 보이게 하는 단순한 표면 시각적 재질감과 명암효과 없음		복식과 몸의 관계 몸의 움직임에 대한 복식형태의 가변성 복식과 몸의 상호작용 시선이 인체의 외곽으로 해체→인체곡선 강조 시각적 재질감과 명암효과
복식 디자인 요소들의 표현 방식	선적	가축성: 촉각을 강조한 재질감, 작고 단순, 규칙적인 문양, 뚜렷한 선 또는 기하학적 문양에 의한 선적 취향, 공간분리형	회화적	가시성: 시각을 강조하는 재질감, 시각적 움직임에 의한 운동감, 선적 취향이 나타나지 않는 문양, 불분명한 문양이나 표면장식→공간통합형(모양-바탕의 다의성)
복식 디자인 요소들 간의 관계	다원적 통일성	여러 가지 뚜렷한 부분들: 문양, 구성요소, 디테일 부분을 먼저 보고 전체를 보는 '부분-전체형', 복식 내의 상대적으로 독립된 부분들에 기인: 복식의 내부형·디테일·트림밍의 역할 강조 부분들 간의 비례, 균형, 질서	단일적 통일성	관찰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복식내의 개별 부분들이 없다. 전체를 먼저 보고 부분들을 관찰하는 '전체-부분형', 장식/문양으로 강조된 부분이 존재해도 다른 부분들이 균등히 강조되지 않아 독립성을 띠지 못함. 부분의 중첩 또는 부분들 간의 상호의존성
		명료성		모호성

복식을 보는 시형식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Wölfflin이 제시한 기준 중 촉각상(觸覺像)과 시각상(視覺像)을 채택하여 복식의 선적인 측면과 회화적인 측면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 대립개념에서는 복식조형 요소 중 촉각을 자극하는 재질과 시각 효과를 나타내는 문양의 선적인/회화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내부형의 장식적 디자인 요소인 디테일과 트림밍 역시 분석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복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따른 시형식 유형이다. 복식에서의 선적인 것은 재질 표면의 촉감이 강조되어 촉각을 자극하거나 표면의 기하학적 문양에 의한 선적인 요소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복식의 조형적 특징으로 분류하겠다. 회화적인 형식은 선보다는 하나의 덩어리로서 파악되는 특성이 강조되며 촉각을 자극하는 재질

표면보다는 시각적 운동을 유도하는 재질 표면에 기인하는 시형식이다. 부드럽고 광택이 많은 소재는 의복 표면에 두드러지는 명암의 대비를 초래해 시각을 자극한다. 문양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사실적인 꽃무늬와 같은 문양의 표현방식이나 몸의 움직임에 의한 가변성으로 문양이 모호하게 보이는 시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다원적 통일성과 단일적 통일성<sup>28)</sup>은 복식의 형태를 지각할 때 전체와 부분 중 어느 것을 먼저 지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개념으로 복식디자인 요소들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시형식이다. 여기서 '부분'이란 내부형과 구조형을 이루는 복식의 다양한 형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의복 전체와 소매, 보디스, 스커트, 바지 또는 의복 전체와 문양, 디테일의 관계에서 부분이 전체에 대하여 종속적이냐 독립적이냐

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원적 통일성은 의복의 개별 부분들이 전체를 이루는 일부일지라도 항상 어떤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각 부분은 고유의 독자성을 갖는 형태를 의미한다. 재질, 디테일, 문양, 내부형 등이 균등하게 강조된 형식으로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전체를 관찰하게 되는 특성이다. 복식의 부분들이 비례와 균형을 이뤄 배치되는 것이 중요한 조형적 특성이다. 단일적 통일성은 뚜렷하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의 주제로 합류되는 형식을 의미한다. 관찰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강조점-형태, 디테일, 문양-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먼저 본 후 부분들을 관찰하는 형식이다. 강조점이 있다 해도 그것이 다른 부분들과 같은 재질로 된 내부형으로 구성되었다면 전체로 통일된 형태로 지각되며 이 때 의복의 부분들은 상호의존적인 경향을 보인다. 불규칙적인 반복에 의한 중첩 효과 또한 단일적 통일성을 드러내는 조형적 특성으로 이는 주로 디테일이나 트리밍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강조된다.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의 틀을 세 쌍의 대립개념으로 재구성되어 닫힌 형/열린 형, 선적/회화적, 다원적 통일성/단일적 통일성으로 정립하였다. 이들 대립쌍에서 전자에 해당하는 시형식이 충족되면 복식은 명료하게 보이며 후자에 해당하는 시형식이 충족되면 복식은 모호하게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형식 유형은 결국에는 복식 형식의 명료성과 모호성을 형성하기 위한 필수조건들이며 동시에 세 가지 쌍의 시형식에 의해 도출되는 결과물이다. 각각의 시형식 유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복식의 형식에 나타난 명료성과 모호성은 시형식의 총체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의 새로운 분석 틀을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표 4).

#### IV. 결론

복식이라는 미적 대상 역시 예술작품과 마찬가지로 양식의 이중구조를 토대로 평가, 분석될 수 있다. 복식 양식에 있어서 이중구조란 복식은 외적 요소인

형식과 내적 요소인 내용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형식은 외적인 형태, 즉 조형성을 포함하며 내용은 조형성을 빌려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정신적 측면을 의미한다. 복식의 외관을 구성하는 선, 형, 색, 재질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인지되는 것이 형식을 이루는 주요 요소이며 시대정신, 사상, 감정, 미적 가치와 미적 취향 등이 내용을 이루는 주요 요소이다. 즉 이러한 정신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도구가 형식인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복식에 표현된 형식미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Wölfflin과 DeLong이 제시한 5쌍의 시형식 대립개념을 이론적 근간으로 채택하였다.<sup>29)</sup>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감(加減) 없이 적용되어왔던 Wölfflin과 DeLong의 이론에는 다양한 시대적,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지닌 복식의 형식을 분석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문헌연구 과정에서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학자의 이론에 존재하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형식을 보이는 복식미를 분석하기 위해 적합한 조형적 특성이 추가된 새로운 분석 틀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새롭게 도출된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은 닫힌 형과 열린 형, 선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 다원적 통일성과 단일적 통일성의 세 가지 대립개념 쌍으로 재구성되었다. 첫째, 닫힌 형과 열린 형은 복식과 주변공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실루엣의 명료성/불명료성과 몸에 대한 복식의 불변성/가변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형식이다. 둘째, 복식에 나타나는 선적/회화적인 특성은 재질과 문양을 분석 기준으로 삼아 복식디자인의 요소가 표현되는 방식을 중심으로 구분이 가능한 시형식이다. 가촉적인 재질감과 선적 취향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문양을 가진 복식은 선적인 것으로, 반대의 형식을 보이는 경우는 회화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셋째, 다원적/단일적 통일성으로 복식디자인의 기본원리인 통일성이 어떻게 완성되느냐에 따라 구분하였다. 즉 부분들 간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시형식이다. 개별 부분이 균등히 강조되어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전체형은 다원적으로, 부분들이 전체에 종속되어 전체가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전체-부분형은 단일적으로 통일성이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 닫힌 형이면서 선적이고 다원적 통일성을 보이는 형식은 복식을 명료하게 보이게 하는 필수조건이며, 열린 형이고 회화적이며 단일적 통일성을 보이는 형식은 복식을 모호하고 불명료하게 나타내는 필수조건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즉 복식의 명료성은 대립개념 쌍의 전자에 해당하는 시형식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복식의 모호성은 후자에 해당하는 시형식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복식미를 보는 시형식은 다양한 시대, 문화, 민족의 복식뿐만 아니라 단일 아 이템에 나타난 시대적, 조형적, 문화적 특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복식에 표현된 형식미를 분석하는 객관적인 틀로써 앞으로 이어질 후속연구의 이론적 근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참고문헌

- 1) 홍준화 (2003). 조형예술의 시형식에 관한 연구: Fiedler, Hilderbrand, Wölfflin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3, p. 66.
- 2) Fiedler는 순수가시성을, Hilderbrand는 Fiedler의 가시성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다른 심층표상 형식을, Wölfflin은 직관형식을 중심으로 예술에서의 시형식을 논의하고 있다. 홍준화, 위의 책.
- 3) 위의 책, p. 142.
- 4) 신민정 (2003). 뵐플린 형식사적 양식론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27.
- 5) Wölfflin, Heinrich (1994). 미술사의 기초개념. 미술사의 기초개념: 근세미술에 있어서의 양식발전의 문제. 박지형(역), 서울: 시공사, p. 28.
- 6) Wölfflin, Heinrich (1994). 앞의 책, p. 276.
- 7) <표 1>에 사용된 이미지의 출처: Wölfflin (1994). 미술사의 기초개념: 근세미술에 있어서의 양식발전의 문제. 박지형(역), 서울: 시공사.
- 8) Wölfflin, Heinrich. 앞의 책, p. 333.
- 9) DeLong, Marilyn R. (1997).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금기숙(역), 서울: 열화당, p. 3.
- 10) 위의 책, pp. 42-47.
- 11) 위의 책, pp. 49-50.
- 12) DeLong, Marilyn R. 앞의 책, pp. 24-35.
- 13) Wölfflin, Heinrich. 앞의 책, p. 177.
- 14) Davis, Marian L. (1990). 복식의 시각디자인. 이화연외(역), 서울: 경춘사, pp. 93-98.
- 15) Horn, Marilyn and Gurel, Lois (1988). 의복: 제 2의 피부. 이화연(역), 서울: 도서출판 까치, p. 331.
- 16)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 1. 서울: 교문사, pp. 150-153.
- 17) 김혜연 (1998). 복식조형의 공간적 특질에 관한 연구 -I. 복식, 38, pp. 36-37.
- 18) 이은영 (2003). 복식디자인론. 서울: 교문사, p. 64.
- 19) 김민자. 앞의 책, p. 151.
- 20) 위의 책, p. 152.
- 21) 김민자. 앞의 책, p. 153.
- 22) Davis, Marian L. 앞의 책, pp. 207-232.
- 23) 위의 책, p. 233, pp. 252-254.
- 24) 위의 책, pp. 24-25.
- 25) Wölfflin, Heinrich. 앞의 책, p. 42.
- 26) 위의 책, p. 78.
- 27) DeLong, Marilyn R. 앞의 책, p. 26.
- 28) DeLong은 부분-전체형과 전체-부분형으로, 김차주 외 2명은 다양성과 통일성으로 구분하였다.
- 29) 최수현은 DeLong이 복식의 시각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기호로서 제시한 다섯 쌍의 대립개념 중 Wölfflin의 대립개념과 유사한 두 가지 요인을 선택하여 이를 바탕으로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조형 예술미와 복식미를 각 시대의 표상 형태와 미적 범주로 구분하여 비교 고찰하였다(최수현 (1994). 복식의 미적 범주: 르네상스, 바로크 복식에 적용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차주, 이선경, 김옥진은 Wölfflin이 제시한 표상형식을 현대 여성 수트의 형식적 특성에 대한 연구-분석 틀로 적용하였다. 그의 이론을 토대로 이원적인 대립개념인 유사(類似) 르네상스와 유사(類似) 바로크 형식을 도출하여 현대 여성의 수트에 표현된 형식미를 분석하였다(김차주·이선경·김옥진 (1996). 1990년대 Fashion에 나타난 여성 수트의 형식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가정과학연구, 6) 두 학자의 시형식 이론은 서양복식 외에도 한국 전통 복식인 한복의 형식미를 고찰하기 위한 분석틀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김순영·남윤자 (2002). 조선 후기와 현대여자 한복 형태 비교: DeLong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복식, 52(5)).